

# VLCC 신조선가 1억3000만달러 기록

## 지속적인 선가상승으로 최고치 경신

### 강재가격 급등과 수요증가로 상승세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0만중량톤급 대형 유조선 VLCC의 신조선가가 1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본해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강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선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다 세계적인 해상수송 수요의 증대에 힘입어 조선 수요가 전선종으로 확산되면서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조선시장의 정보에 의하면 4월6일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이스 선주로부터 31만중량톤급 VLCC 3척을 수주했는데, 1척의 선가가 1억300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박의 완공은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종전까지 VLCC의 신조선가는 1척당 1억달러 수준이었다.

이처럼 신조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증가로 부정기선시황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선박수요가 폭증, 신조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데다 강재부족과 가격인상의 영향으로 작년말부터 상승압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전개되는 선가의 급격한 오름세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했던 적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나 해운·석유 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VLCC의 경우 원유수요의 증가로 2010년까지 세계에서 필요한 신조선 순증가량은 140척에 달하며, 국제규정에 의해 2010년까지 강제로 퇴출

되는 VLCC가 28척인 점을 감안하면, 신조수요는 168척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VLCC의 운임시황은 선가상승과는 달리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장상황을 보면, EXXON 모빌이 2002년 준공된 26만중량톤급 선박을 WS 80으로 성약했다. 3월 하순의 성약에 비해 20 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4-6월기에 제유소가 정기수리를 실시하기 위해 원유수입을 일시 조정하는 데다 겨울철의 원유 수요가 끝난 것 등이 운임하락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